광주U대회 내년 7월2일 첫 경기 '스타트'

조직위, 일정 최종안 제출…"준비 만전 기하겠다"

10월께 FISU 확정…13일간 21개 종목 열띤 경쟁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내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개최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종합경기일정 최종안을 결정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통보했다.

종합경기일정 최종안은 지난해 6월 조직위가 첫 초안을 제안한 이후 FISU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오는 10월 FISU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는 대회 개막 하루 전인 7월 2일 축구와 수구를 시작으로 육상, 수영, 사격, 태권도, 유도 등 21개 종목에서 총 272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띤 경쟁이 펼쳐진다. 수구경기는 대회 마지막 날까지 13일간 연일 치러지는 유일한 종목이다.

선수들이 대회기간 중 가장 많은 금메달을 놓고 경기를 치르는 날은 대회개막 7일째인 7월9일로 육상, 수영 등 7개의 종목에서 37개의 금메달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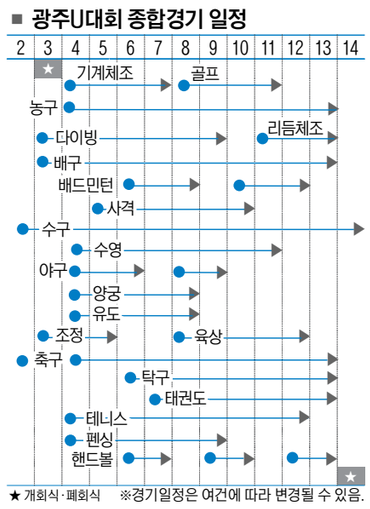
메달이 가장 많은 종목은 육상으로 금메달만 50개이며, 수영이 금메달 42개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종목 중 메달수가 가장 적은 종목은 배드민턴으로 6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국의 대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메달밭으로 예상되는 효자 종목으로는 태권도(금메달 23개), 양궁(10개), 배드민턴(6개), 유도(18개), 탁구(7개), 사격(34개) 등으로 총 금메달 수만 98개에 이른다.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7일 "종합경기일정을 바탕으로 경기 및 대회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특히 성공적인 광주 U대회는 물론 이번 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U대회 종합경기 일정



★ 개회식·폐회식 ※경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광주U대회 세계의 이목 집중시킨다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원 기자를 초청,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사트 일마에르(왼쪽에서 네번째) 세계체육기자연맹 부회장, 파이살 알 카나이(다섯번째) 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장 등 30여개국 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U대회조직위 제공〉

'국제기후·환경산업전' UFI 인증

〈국제전시협회〉

DJ센터 주관…9월15일 개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호남 유일의 환경산업 전문전시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국제전시협회(UFI·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의 인증을 획득했다.

UFI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세계 최고 권위의 인증기관으로, 세계 전시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2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창립됐다. 현재까지 국내 400여개 전시회 중 32개 전시회가 인증을 받았다.

광주시는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UFI 인증을 계기로 중소기업 해외수출과 환경산업의 고용창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회째를 맞이한 '2014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전시회 인증'을 받기도 했으며, 올해에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기후변화특별관(산업관·체험관)과 환경기술관(수처리·대기·폐기물·토양 등)이 설치되면 국제환경산업콘퍼런스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광주에서는 오는 9월부터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와 국제관개배수위원회 광주총회, 물관리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국제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행사를 통해 관내 3개 기업이 케냐, 중국 기업과 3383만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UFI 인증을 계기로 관내 업체의 해외 판로개척과 고용창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CG프로젝트 지원작품 선정

'두다다쿵2'·'마스크 마스터즈'·'석불사 라이브'

문체부 공동…9억원 지원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14년 CG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3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작품은 ▲TV시리즈 애니메이션 '두다다쿵 시즌2' ▲마스크마스터즈 시즌2 ▲미디어 아트 '석불사 라이브'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글로벌CGI제작센터내 스튜디오 입주, CG 관련 장비, 제작지원금 총 9억원 등이 지원된다.

'두다다쿵 시즌2'는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로 지역에서 창업 지원을 통해 성장한 아이스크림스튜디오가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신설된 미디어 아트 분야의 '석불사 라이브'는 광주에서 활동중인 매그논스튜디오(대표 양일석)가 제작한다.

오순철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CG 사업은 그동안 광주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기반이 탄탄히 다져진 사업이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광주에서 제작된 CG활용 성과물을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의 情 담긴 '꿈주머니' 아프리카 후원회에 기부

광주 시민 직접 학용품 등 담아

12월께 케냐 어린이 등에 전달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줄 학용품을 담는 '꿈 주머니(Dreamket)'가 케냐 등 아프리카로 전달될 예정이다.

꿈 주머니는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찾으려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가방으로, 광주시가 넬슨 만델라의 박애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7월18일 개최한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행사에서 참가 시민들이 손수 제작했다.

기부물품은 행사에서 꿈 주머니 제작을 지켜본 정현오(올리브플레이스 대표)씨가 기부한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 학용품 400여 점과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의 티셔츠 500장, 푸른광주21의 손수건 500장 등이다. 시는 지난 5일 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ADRF)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후원회는 오는 12월께 케냐 등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DRF는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11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구촌 저개발 국가 빈곤 아동들에게 희망의 교실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꿈주머니와 주머니에 담긴 물품들.

광주시, 부동산 무료 상담…법률·신고 등

매주 수요일 시청 민원봉사실

광주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부동산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를 개설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위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가 추천한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10명으로 구성, 매주 2명씩 상담한다. 1회 상담시간은 제한이 없고, 예약 없이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에서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 부동산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 분쟁 시 대처방법 등 일반인이 부동산 거래 시 어려워하는 부분을 상담인의 실생활을 중점으로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현장에서 직접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방법을 인식하고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